

흡연에도 유행이 있다!

글 □ 김대현(계명대 동산의료원 가정의학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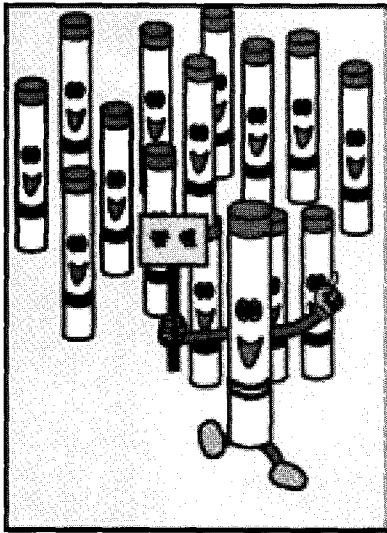
담배가 어떤 사회나 국가에 소개되면 흡연의 유행이 4단계로 진행된다고 한다.

1단계는 남성 흡연율이 서서히 증가하는 단계이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저개발 국가가 1단계에 있으며 흡연율이 낮지만 다국적 담배회사들의 판매 확대 전략으로 흡연율이 빠르게 증가한다. 남아프리카 주변지역 국가의 남성 흡연율은 20% 이하, 여성의 흡연율도 매우 낮지만 몇몇 국가들은 담배 재배 면적이 1970년 이후 10배나 증가하고 담배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담배 경제 활성화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행의 2단계는 남성 흡연율이 50% 이상(70%까지)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단계로, 여성 흡연율과 남성 폐암 사망률은 증가한다. 아시아 국가, 북아프리카, 남미가 이러한 유행을 보여 주고 있다. 담배 규제활동은 일반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 담배의 건강 위험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적극적인 금연 운동이 필요한 단계이다.

유행의 3단계는 남성 흡연율과 여성 흡연율이 모두 감소하는 단계이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20~30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담배로 인한 사망률은 아직 증가한다. 유럽과 남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 단계에 있다. 흡연율은 감소하지만 흡연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의 10~30%를 차지하고 특히 남성에 있어서는 75%에 이른다. 건강교육과 매체홍보로 금연분위기를 확산시켜, 공공 장소의 흡연 제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

유행의 4단계는 남성과 여성 흡연율이 더욱 감소하고, 남성의 흡연으로 인한 사



망이 전체 사망의 30%~35%(이중 40~45%는 중년에 사망)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단계이다. 여성들의 흡연 관련 사망률이 전체 사망의 20~25%를 차지한다. 북 서부유럽 국가, 북미, 호주가 이러한 나라에 속한다. 핀란드는 광범위한 국가적 프로그램으로 1970년대 남성 흡연율을 빠르게 감소시킨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흡연의 유행중 2단계 말에서 3단계 초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 흡연율이 6.0%(2002년)에서 3.5%(2003년)로 감소하는 것

으로 보아 3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젊은 여성의 흡연율이 증가하고 여성 흡연율이 저평가(under-reporting) 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여성 흡연율은 아직 증가하고 있는 2단계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러한 흡연의 유행 단계를 크게 살펴보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금연 운동과 금연교육의 방향을 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여성 흡연이 아직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성 흡연을 감소에 더욱 관심을 갖고 금연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한 지속적인 국가 금연운동이 흡연유행을 3, 4단계로 변화시키고 흡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국민건강에 중요한 흡연 문제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투자로 선진국형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흡연율과 흡연으로 인한 사망이 감소하도록 흡연유행의 단계를 선진화하는 것, 국민 복지를 증진시키고 건강한 나라로 가는 기초가 될 것이다. †